

호남인 긍지 높은 감동의 명승부들... 올핸 꼭 V10



KIA 타이거즈는 프로야구 출범 다음해인 1983년 정규시즌 우승과 한국시리즈 우승을 동시에 차지했다. 이후 1986(후기 우승)·1988(전·후기 우승)·1991·1993·1996·1997년에도 정규시즌 1위로 한국시리즈에 안착한 뒤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정규시즌 우승=한국시리즈 우승'이라는 공식을 썼다. 정규시즌을 2위로 마감했던 1987년과 1989년에도 한국시리즈 무대에 올라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프로야구 최다 우승 기록인 'V9'을 달성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사진=광주일보 DB

V1 <1983년> 김봉연과 김성현의 불방망이를 앞세워 시즌 1위를 달렸던 타이거즈는 1차전부터 상대팀 MBC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7-4로 1차전을 낙승한 타이거즈는 타선의 활약으로 2연승을 달린 뒤 나흘로 5타점을 기록한 김봉연을 앞세워 3차전까지 승리를 장식했다. 하지만 4차전에서 16안타를 가지고 1점을 만들며 패배를 기록한 타이거즈는 5차전 주동식을 앞세워 MBC 타선을 봉쇄하며 8-1로 승리, 대망의 우승컵을 안았다.



MVP 김봉연
이해 여름 교통사고를 당했던 김봉연은 콧수염으로 상처를 가리고 재기를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그 결과는 팀의 첫 한국시리즈 MVP로 돌아왔다. 김봉연은 3차전 3점 홈런을 포함해 한국시리즈에서 19타수 9안타 8타점을 기록했다.

V2 <1986년> 삼성과의 1차전, 1-3으로 뒤지던 9회말 타이거즈의 끈기가 발휘됐다. 김일권의 적시타와 김성현의 밀어내기 볼넷을 승부를 연장으로 돌고안 타이거즈는 11회말 타진 김성현의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거뒀다. 2차전 1-2 1점차 패배를 당했던 타이거즈는 3차전 장효조·이만수를 앞세워 삼성과 타격 대결 끝에 6-5로 2승세를 기록, 4차전 11회 연장 승부 끝에 승리한 타이거즈는 5차전 가을 사이인 김정수를 선발로 내세워 5-2의 승리로 2연패를 달성했다.



MVP 김정수
신인 김정수는 1, 3, 5차전에서 3승을 수확하며 단숨에 한국시리즈 MVP에 올랐다. 데뷔 첫 해 가을잔치에서 3승을 올린 김정수는 한국시리즈 7승을 거두며 '가을까지'라는 예칭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았다.

V3 <1987년> 정규시즌을 2위로 마감한 타이거즈는 대구구장에서 삼성과 1차전을 가졌다. '재간들이' 이순철이 볼넷과 도루로 기선제압에 나섰다. 상대의 실수까지 유도하며 1회초 3점을 뽑으며 5-3으로 승리한 타이거즈는 김정수와 신동열로 이어진 마운드의 힘으로 2연승을 달성했다. 김준환의 결승 솔로홈런으로 3연승을 기록한 타이거즈는 4차전에서 김대현과 김정수의 호투와 14개의 안타를 몰아친 타선의 힘으로 4경기 만에 한국시리즈를 마감했다.



MVP 김준환
김준환의 명예회복 무대였다. 정규시즌에서 0.204의 타율을 기록하며 최악의 시즌을 보냈던 김준환은 12타수 6안타를 기록하며 팀 공격을 주도했다. 3-4차전에서 연속해서 홈런을 쏘아올린 활약으로 MVP를 품에 안았다.

V4 <1988년> 빙그레와의 1차전은 신동열과 이동석의 맞대결로 눈길을 끌었다. 시즌 맞대결에서는 이동석이 노리드너런으로 승리를 거뒀지만 이날 이순철은 솔로포를 터트리며 승리를 견인했다. 2차전 6-5의 신승을 거둔 타이거즈는 3차전에서 흔들림 없이 마운드를 지킨 문희수의 활약으로 3-0으로 승리했다. 하지만 우승을 눈앞에 둔 타이거즈는 2연패에 빠지며 6차전까지 승부를 벌였다. 3차전을 주도했던 문희수가 6차전 완투승으로 팀의 3연패를 만들어냈다.



MVP 문희수
정규시즌에서 신동열, 이상훈, 차동석이 두 자릿수 승을 기록하며 문희수는 8승에 머물렀지만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신동열에 이어 등판해 세이브를 거둔 뒤, 3, 5차전을 승리로 장식하며 MVP에 올라 이해 가을 스타가 됐다.



V5 <1989년> 빙그레와 최종 무대에서 맞붙은 타이거즈는 1차전에 신동열을 내세웠지만 1회말 이강민의 홈런에 기선을 빼앗겼다. 타자들도 이상군·송진우·양희민의 공세에 무너지면서 1차전은 0-4 완봉패로 끝났다. 하지만 신동수, 문희수, 김정수를 앞세워 3연승을 달린 타이거즈는 잠실구장에서 벌어진 5차전에서 신동열의 양백구원투부와 김성현·백인호·박철우의 다이나마이트 타선의 활약 속에 5-1로 4번째 승리를 챙기며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다.



MVP 박철우
1989년 데뷔 3년시점에 3할 타율을 기록했던 좌타자 박철우는 한국시리즈에서도 4번 타자로 나서 18타수 8안타의 맹타를 기록하며 MVP의 영예를 안았다. 박철우는 한국시리즈 MVP에 이어 롯데글로벌 우승을 수상하며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

V6 <1991년> 역전과 역전, 타이거즈의 저력을 과시한 멋진 승부였다. 1989년에 이어 2년 만에 만난 빙그레와의 맞대결에서 다시 한번 신동열이 1차전 선발로 나섰다. 2회초 강정길의 솔로 홈런으로 빙그레가 선취점을 뽑았지만 한대화와 역전 투런홈런이 터졌다. 타선 지원에 받은 신동열은 9회까지 마운드를 지키며 승리투수가 됐다. 이후 타이거즈는 4게임에서 모두 선취점을 내줬지만 뒤집기 소를 벌이며 4연승으로 한국시리즈를 마무리 했다.



MVP 장재근
팀의 안방을 도맡아 정규시즌 1위를 이끌었던 장재근은 한국시리즈에서 15타수 7안타 8타점을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특히 4-5로 뒤지던 4차전, 9회초에 동점타를 터트린 장재근은 짜릿한 역전극의 발판을 마련하며 한국시리즈 MVP를 거머쥐었다.

V7 <1993년> 1993년 10월26일 '무등산 폭격기' 신동열이 삼성의 강타자 이만수를 유격수 평범로 처리하면서 타이거즈의 7번째 우승이 완성됐다. 1차전 역전승으로 출발한 타이거즈는 2차전 김정수가 초반에 무너지면서 0-6의 완봉패를 당했다. 3차전은 15회 열투였다. 삼성 박성식은 나흘로 마운드를 지켜냈지만 끝내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세번 채 한국시리즈 대결인만큼 양팀은 7차전까지 가는 접전을 벌였고, 이종범의 빠른발로 앞세운 타이거즈가 최후의 승자가 됐다.



MVP 이종범
특급 신인 이종범은 29타수 9안타 4타점 7도루로 데뷔 첫해 한국시리즈 MVP의 영예를 안으며 프로야구 역사를 새로 썼다. 마지막 7차전은 이종범의 무대였다. 첫타석에서 안타를 기록했던 이종범은 두 번째 타석에서 내안타에 이어 도루를 성공시키며 상태를 뒤흔들었다.

V8 <1996년> 태평양에서 현대로 재탄생한 신에 팀과 관공의 타이거즈의 대결이었다. 타이거즈는 이대진의 호투로 한국시리즈를 출발했다. 조계현이 나선 2차전 타선의 침묵으로 연장 11회 승부에서 1-2로 패한 타이거즈는 3차전 이강철의 완봉승으로 현대를 제압했다. 하지만 4차전 현대 선발 정명민에게 노히트 노런을 당하며 전국과 지옥을 오갔다. 2승2패로 맞선 5차전 정에 부수들을 총부림하며 5-2의 승리로 8번째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MVP 이강철
3차전 완봉승으로 마운드를 총력한 언더 투수 이강철은 마지막 승부가 된 6차전에서 다시 선발로 출격해 5와 3분의이닝을 1실점으로 뒤편 팀의 우승의 발판을 마련하며 팀의 8번째 한국시리즈 MVP로 이름을 올렸다.

V9 <1997년> 1993년 입단 동기인 이대진이 마운드를 지켰고, 이종범은 4타수 1안타 1타점 1도루로 상대팀 LG를 뒤흔들며 1차전 6-1의 승리를 이끌었다. 2차전 1-10 대패를 당했지만 3차전 이종범은 두개의 홈런을 터트리며 5-1 승리의 주역이 됐다. 홍원우·김창희·김종국의 홈런으로 4차전 승리를 장식한 타이거즈는 5차전 '영원한 아가 호랑이' 김성진의 완투를 발판 삼아 팀의 9번째 우승 역사를 썼다. 당시 20살이었던 김성진은 한국시리즈 최연소 완투승의 기록을 썼다.



MVP 이종범
모든 승리에는 이종범이 있었다. 시리즈 내내 골타자로 팀의 공격을 이끈 이종범은 3차전 연타석 홈런을 쏘아올리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2승을 챙긴 이대진과의 경쟁 끝에 93년 이후 두 번째로 한국시리즈 MVP를 수상했다.



대한항공과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 상품

- ★ 제주 골프 특선 ★
 - 1. 반세리 (세니티 리프트 32일 + 80타지) ₩189,000
 - 2. 라온 골프장 34일 + 세인리조트 ₩299,000
 - 3. 특급 호텔 2박1일 + 영문CC ₩309,000
- 고객 사은 제주도 패키지 여행 2박3일
 - 올레길 + 신제주 관광명소
 - 관광호텔(2인1실) ₩199,000 + 특급호텔(2인1실) ₩259,000
 - *20명이상 출발 무한 제주 여행 상품

KOREAN AIR (주)투어클럽 TEL 382-8201

DYNASTY **합평다이내스티CC 국화 Festival!!!**

Go! Go! 국화 Festival!!!

국화 Festival!!!

www.dynastycc.com